

『지금,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강연회에서 요시카와 아키히로(吉川彰浩)씨에 의한 증언에서

2013년 8월 5일 스기모토 나오야(杉本直也)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엄청난 사고 이후, 동북 헬프에 있어서, 당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은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 동경 전력(東京電力)의 정사원으로서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소에서 종사하고 계신 요시카와 아키히로씨에 의한 강연회가 7월 20일(토)에 센다이(仙台) YWC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북 헬프 이사들과 직원들의 시간이 여의치않은 가운데, 개인적인 관심도 있어서, 스기모토(杉本)가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이하, 요시카와씨의 증언을 가능한한 기록 및 요약 하였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사고 당시의 요시카와씨의 주변 상황

동북 지방 태평양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당시, 요시카와씨는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소에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날 시간이 되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지진 때문에 책상 위 물건이 산란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발생한 니가타현(新潟県) 나카고시(中越) 오키(沖) 지진 뒤에 내진 보강을 하였으므로, 그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멈춘 후, 처음으로 한 작업은 사무소의 안전 확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소 내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을 표시하는 전광 게시판이 있어, 「0 MW (megawatt)」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요컨대 정확히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그라운드에 피난한 직원 및 관계자들의 안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라운드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만, 주위가 나무들로 둘러싸여져서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는 그라운드의 베틀 아래에 있고, 지하 이층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에 모인 사람들도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안전은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낙관시 하였다고 합니다. 안전성에는 대단한 자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쓰나미가 온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와 버렸습니다. 그라운드로부터는 바다가 보이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쓰나미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발전소 지하에는 긴급시에 가동하는 D/G(디젤발전기), 배터리, 전원설비 (이 설비를 경유해서 발전소 내에 전기가 송전 되고 있다)가 있어, 침수 파손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와서 처음으로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 쓰나미가 난후,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냉각하는데 4 일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 되었지만, 관계자분들은 피폭을 각오로 복구 작업에 종사 하였다고합니다.

2.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상황

집회 장소에서, 소장이, 이제부터는 엄청난 상황속에서, 결사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취지를 사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 주기를 직원에게 부탁 하였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소에는, 동경 전력(東京電力)의 사원이 약 800 명, 협력 기업등의 인원을 넣어서 약 2000~3000 명 있었다고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발전소주변에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자진해서 현장에 남을 의사를 나타 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피폭 당할것을 알고 복구 활동을 하였지만, 그중에는 자신의 가족 안부조차 모른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3 호기가 폭발한 것으로 현장은 패닉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겠지만, 그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

현재, 현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만두는 가운데, 「간신히」 인원이 보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직원들이 그만두는 대신 다소 경험이 적은 타업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하기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0 비난

원자력 발전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폭언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죽어라」
「오염된 탱크 물을 마셔라」
「죽어서 (원자로를) 정지 시켜라」

0 거주 환경의 악화

임대 아파트가 부족한 가운데, 민박의 좁은 방에 초만원으로 숙박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 빌린 아파트라든가 가설 주택이 더 나은편이라고 합니다.

0 대우의 악화

직원의 급여가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다중하청 구조가 존재하고, 급여가 뺄뺄되어, 위험수당을 받지 못할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염 정화 작업쪽이 대우가 나아지고 있어서 인원의 유출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 안에서는 동경 전력(東京電力)의 사원이라면 고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20 세 정도의 사원 조차도 연수 200 만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업원은 월수가 실수입 10 만엔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원에게는 동경 전력(東京電力)에 머무는 것을 정말 권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대사고의 우려

현장에서 30~40 년 작업에 종사한 분이 「폐화로는 30~40 년 걸려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폐화로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만두고 있어 작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쥐가 원인으로 쇼트가 발생하고, 전원이 일시 정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원은 정신적으로도 추궁 당하고 있어, 이대로는 노이로제가 걸리는등 언제 정신적으로 지장을 초래해서 중요한 케이블을 뽑아버리는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일어나도 응급처치를 할 수 없고, 오염 물에 관해서는 모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요시카와(吉川)씨는 가까운 장래,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5. 피해자로서의 요시카와(吉川)씨

요시카와(吉川)씨 자신도 피해자이며, 동경 전력(東京電力)에서 1명 1개월당 10만엔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부인과 합하여 1개월당 20만엔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현의 주인에게 「많은 액수를 받고 있네요」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상금은 고정 자산세로부터 산출되어, 귀가 곤란 구역에 사는 경우에는 5년으로 끝난다). 휴업 보상도 몇 년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시카와(吉川)씨 자신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6. 질의 응답에서

Q : 「원전사고에서는 사망자가 10명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

A : 「 2명이 쓰나미로 익사했다. 제 2 원전에서는 배기 탑 손상의 원인으로 1명 사망했다고 듣고 있다. 」

Q : 「원자력은 좋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

A : 「지진 재해전은, 이산화탄소를 삭감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고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메리트가 인정을 받고 있었다.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의 출력은 낮아서 아직 시험 단계다. 한편, 현재 우리들이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이다. 단, 보수·점검에 종사하는 작업원에 의하면, 화력발전은 설비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노화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재가동이 진행되는 배경으로는 화력 발전소가 사용할 수 없어졌을 때에 원전이 유효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단지, 가령 원전을 벗어난다고 한들, 이제 바로 원전없는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로 바꿀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완만한 탈원자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Q : 「재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책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고 하는가? 」

A : 「재가동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좀 더 일반인들의 입장이되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본사에서 일하는사람들을 존경하고 있고 다그칠 수 없다. 그들은 격무에 쫓기고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두꺼운 메뉴얼을 만들어 주었다. 」

Q : 「원전의 보수·점검에 대해서는? 」

A : 「 엄격한 법령이 있어, 점검·개수 계획표를 만들게 되어 있다. 몇십만이나 되는 기계가 있고, 실제로는 드물게 점검 누설이 발생한다. 단, 자신들의 미스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재점검을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한편, 현장은 비밀 사항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비밀 사항을 만들면 쓸데 없는 일이 늘어나는 것 뿐이다. 」

Q : 「 핵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

A :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학습을 하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모른다. 단, 연수는 있었다. 」

Q : 「 측정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

A : 「 많은 측정기가 쓰나미로 상실되었다. 패닉이 되어서 측정기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고 듣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는 적다. 한편, 건물 밖에서는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전사고에 있어서 피폭후는 피폭 측정의 계산을 어렵잡아서 파악하고, 일람표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

끝으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화를 단편적인 문서로 재현하는 것으로, 오해를 주는 표현이 문서중에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시카와 아키히로씨 (33) 약력

15 세 동경 전력(東電) 학원 고등부 입학,
18 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 시작
28 세 후쿠시마 제 2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 시작
32 세 동경 전력(東京電力)을 퇴직
현재 무직